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뉴칼레도니아

New Caledonia

2022년 1월 13일 | 책임조사역(G3) 이주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9천 km ² 	인구 29만 명 (2021 ^e) 	정치체제 프랑스 해외령 	대외정책 - 
GDP 102억 달러 (2021 ^e) 	1인당GDP 35,184달러 (2021 ^e) 	통화단위 Comptoirs Français du Pacifique(CFPfr) 	환율(US\$기준) 100.0 (2021 ^e) 

- 뉴칼레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동쪽으로 1,500km, 뉴질랜드에서 북동쪽으로 1,700km 지점의 남태평양상에 위치한 섬으로, 주민은 카낙족(토착 원주민), 유럽인, 폴리네시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는 기독교(85%)가 주를 이루고 있음.
- 1853년 프랑스 제2제정 당시 나폴레옹 3세 황제에 의하여 프랑스 영토로 편입되었고, 1956년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France d'outre-mer) 중 하나로 통합되었음. 현재 외교, 국방, 사법, 통화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로부터 정부재정 등을 지원받고 있음.
- 2020년 기준 세계 5위의 니켈 생산국으로, 산업구조가 니켈 생산 및 수출에 편중되어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대부분의 소비재, 자본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상태로 추정됨.
- 연중 기후가 온화하고 아름다운 해변과 깨끗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여 유럽, 호주, 일본 등에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월 이후 관광업은 소강 상태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프랑스 해외영토)

주요협정 (프랑스 해외영토)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141,398	50,206	20,775	석유제품,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수입	342,480	250,913	257,448	니켈 원광, 정밀화학원료, 니켈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1.9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2건, 173백만 달러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e
경제성장률(%)	1.6	1.6	1.6	-4.7	1.8
GDP 규모(억 달러)	94	102	99	95	102
소비자물가상승률(%)	1.4	1.3	0.2	-0.5	1.8
재정수지/GDP(%)	n/a	n/a	n/a	n/a	n/a
경상수지(억 달러)	n/a	n/a	n/a	n/a	n/a
경상수지/GDP(%)	n/a	n/a	n/a	n/a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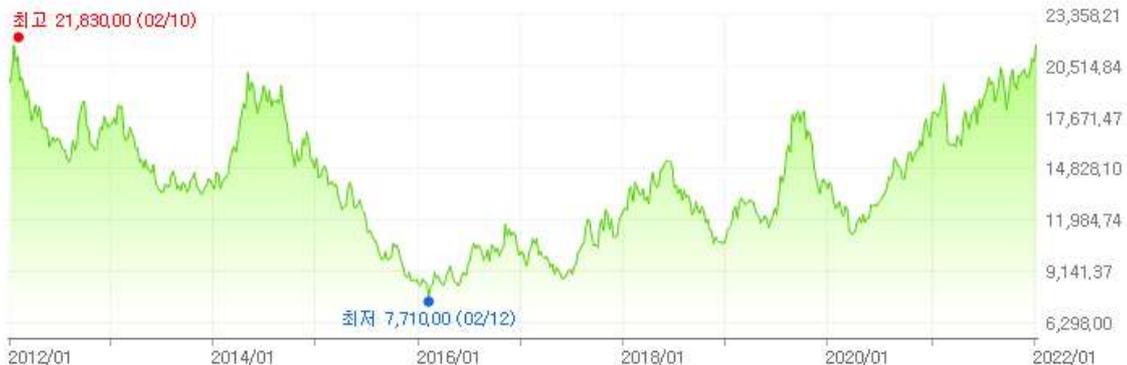
자료: EIU

국내경제

2020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제한적인 경기 회복으로 2021년에는 1.8%의 경제성장 추정

- 니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뉴칼레도니아 경제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니켈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017년부터 1%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2020년에는 코로나19 이후 봉쇄령에 따른 경제활동 침체, 관광객 입국 중단 등의 영향으로 -4.7%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 2021년에도 3~4월, 9~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기 한 달여의 봉쇄령을 실시하여 경제활동이 제한되었으며 기대되던 관광업 재개도 이뤄지지 않아 경기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임. 2021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추정되며, 2022년에도 주요 산업인 관광업의 재개 가능성이 낮아 2019년 수준의 경제규모 회복은 2023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니켈 국제가격이 코로나19 이후 급등하며 10년 전 가격을 회복하여 동국 경제에 우호적인 상황이나, 독립 찬성파의 니켈 자원 통제 강화 요구, 환경 및 노동쟁의 증가, 높은 생산비용 등으로 니켈 산업의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음.

최근 10년 간 니켈 국제가격 추이



자료: LME(런던금속거래소)

국내경제

독립된 통화정책이 부재하며,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예년 대비 높은 수준 기록

-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 해외영토(France d'outre-mer)로서 별도의 중앙은행 없이 프랑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정책금리 결정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결정에 의해 좌우됨. 통화인 프렌치 퍼시픽프랑(CFPfr)의 환율은 유로당 119.3CFPfr로 고정된 페그제로 운영되고 있음.
-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0.5%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대폭 상승한 1.8%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정부 재정은 프랑스 본국으로부터의 재정 원조에 크게 의존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에 매년 약 14억 달러의 재정 이전(financial transfers)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뉴칼레도니아 GDP(95억 달러)의 14.7%에 달하는 금액임. 자치정부 재정은 이러한 프랑스로부터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의 재정수지 관련 세부 통계자료는 없음.

대외거래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추정

- 경제·산업구조가 니켈 원광 및 니켈 제품의 수출에 편중되어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만성적인 상품·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의 경상수지 관련 세부 통계자료는 없음.

외채상환능력

외채상환도 프랑스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에 의존

- 외채상환 역시 프랑스로부터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의 외환보유액 관련 세부 통계자료는 없음.

구조적취약성

니켈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니켈 산업 침체에 따라 성장동력 약화

- 뉴칼레도니아는 주요 니켈 생산국으로, 니켈 산업이 상품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여 니켈의 국제가격 및 국제수요 변동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미국 지질조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뉴칼레도니아는 2020년 기준 세계 5위의 니켈 생산국(연간 20만 톤)이며, 정확한 매장량은 확인되지 않았음. 광업 전문 언론사인 Mining.com은 뉴칼레도니아가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1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2019년 기준).
- 수년 간 노동쟁의, 값비싼 전기료 등에 따른 높은 운영비용, 가격 정체 등으로 니켈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광산 기업들의 적자가 계속되고 성장동력도 저하되었음. 다만 2020년 이후 니켈 가격 상승, 주요 광산기업인 VNC의 자산매각 완료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는 산업 전망에 긍정적인 요소임.
- 뉴칼레도니아 3대 광산기업인 VNC(Vale New Caledonia)의 모회사 Vale은 VNC가 막대한 손실을 지속하자 뉴칼레도니아 시장 철수를 결정하였음. 그러나 2020년 5월 호주 광산기업 New Century Resources가 VNC 지분 매수 계획을 밝혔다가 포기하는 등 매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으며, 결국 VNC가 니켈 광산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대량 실업과 수출 타격이 우려되었음. 2021년 3월 스위스 원자재 기업 Trafigura가 일부 지역 투자자와 함께 VNC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됨.
- 한편, 독립 찬성파와 원주민 카낙족 세력은 니켈 자원이 뉴칼레도니아의 경제·정치적 독립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여 해외 광산기업의 추가 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니켈 제조품이 아닌 니켈 원광의 수출은 뉴칼레도니아 내 제조공정 발달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감소시킨다며 니켈 원광 수출을 줄이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그러나 동국의 전력 생산이 충분치 않아 니켈 제련에 필요한 전력의 가격이 비싼 점은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 이에 따라 니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에는 제약이 있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만성적인 상품·경상수지 적자 지속

- 니켈 생산 외의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주로 소기업에 의해 부가가치가 낮은 소비재가 생산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가공품을 가내수공업으로 생산하는 정도에 그침.
- 니켈 원광 및 니켈 제품 외의 다른 수출품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소비재, 자본재 등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로 인해 만성적인 상품·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주요 수출상대국인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등의 경기변동에 따라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음.

※ 2019년 상품수출액의 국가별 비중(EIU 추정) : 중국 56.2%, 한국 13.7%, 일본 11.5%, 대만 3.2%

- 경상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은 프랑스 본국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보건, 교육, 공무원 급여 지급 등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성장잠재력

관광산업의 잠재력이 높으나 코로나19로 관광객 입국 재개 시점 불확실

-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칼레도니아는 연평균 기온 20~28도의 온화한 열대성 기후로 인해 연중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과 바다를 보유하여 2019년까지 매년 약 1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왔음.
-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뉴칼레도니아 국토의 60%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되었으며, 호텔, 해양 스포츠 등의 관광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전면적인 이동제한을 실시하면서 관광객의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6월 이동제한령 해제 후에도 국경 봉쇄는 계속되어 자국민의 귀국 및 공무를 위한 프랑스 공무원의 방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입국이 금지되었음.
- 이에 따라 뉴칼레도니아의 관광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으며, 아직까지 해외 관광수요 회복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예년 수준의 관광산업 규모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정책성과

신성장 동력 개발,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노력은 성공 전망이 불투명

- 자치정부는 경제의 신성장 동력 개발, 조세개혁을 통한 사회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한 생필품 고물가의 개선 등을 위해 전력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니켈 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개혁 없이는 정책의 성공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임.
-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경기 침체와 사회 불안, 니켈 산업을 대체할 유력 성장동력이던 관광산업의 중단, 독립을 둘러싼 정치·사회 갈등 등으로 정책 추진동력이 약해진 상황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뤄져 2022년 상반기에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프랑스 정부의 무료 백신 제공(화이자 3,500회 분량) 등에 힘입어 뉴칼레도니아 정부의 백신 접종계획이 원활히 실행되어 2021년 말 기준 백신 접종률은 60% 수준임. EIU는 2022년 상반기에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정치동향

2021년 2월 독립 찬성파가 의회 과반수 차지, 7월에는 독립 찬성파인 마푸 대통령 취임

- 2021년 2월 기존의 연정을 해체하고 독립 찬성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가 새로 출범하였으며, 7월에는 독립 찬성파이자 카낙족인 루이스 마푸 대통령이 선출되었음. 독립 찬성파는 처음으로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카낙족 출신 대통령 역시 최초 사례임.
- 독립 찬성파가 의회 다수와 행정부를 차지하면서 독립 찬성 움직임이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의 정체성이나 통치방식에 대한 독립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의견 불일치 등 독립 관련 이슈가 당분간 정치 활동을 지배할 것으로 보임.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3차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갈등 고조

- 1998년 프랑스 정부와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 간에 체결된 누메아 협정에 따라 2018년 11월 및 2020년 10월 독립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두 번 모두 독립 반대가 찬성을 앞질러 프랑스 해외 영토로 잔류하였음.
- 누메아 조약은 동국을 프랑스의 해외영토로 명시하고 정부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며 2014~19년 사이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독립 찬성파는 2018년 국민투표에서 찬성(43.6%)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데 고무되어 국민투표 추가 실시(2차례)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 10월에 2차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음. 이 투표에서 찬성(46.7%)이 1차 국민투표에서보다 증가하였음.
- 2021년 12월 12일 독립 여부에 대한 3차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독립 찬성파가 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투표 참여율 40%(1,2차 투표당시 참여율 약 80%), 독립 반대율 96.5%를 기록하였음. 독립 찬성파는 10월부터 3차 투표 연기를 요청해왔으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고, 소요 사태 방지를 위해 2천 명의 치안 인력을 파견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투표 참여를 거부하였음. 이에 따라 독립 찬성파와 반대파, 뉴칼레도니아 정부와 프랑스 정부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됨.
- 2021년 8월부터 3차 국민투표를 위한 선거운동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9월 봉쇄령 실시로 선거운동이 중단되었음. 9~10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며 독립 찬성파의 기반인 카낙족 등 폴리네시아 원주민 거주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독립 찬성파는 이 같은 상황과 수개월 이상의 추모 기간을 가지는 문화적 특성상 3차 국민투표 준비가 어려우므로 투표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10월부터 요청한 바 있음.
- 프랑스의 해외영토(France d'outre-mer)들은 동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93%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지에 해당함. 이에 프랑스는 뉴칼레도니아에 대한 통치권을 안정적으로 유지코자 함.

사회동향

열악한 교육환경과 일자리 부족, 독립 추진 관련 갈등 등으로 시위 발생 가능성 상시 잠재

- 산업기반이 취약한 도서국(島嶼國)의 특성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 환경오염 증가, 경제규모 협소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 특히 교육과 고용 기회가 백인계 주민에 비해 부족한 원주민 카낙족과 노동자들이 정부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와 파업을 일으킴.
- 3차 독립여부 국민투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며 누메아 협약 체결 이전의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사회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우려됨.
- 2020년 말에는 VNC의 지분 매각을 둘러싸고 독립 찬성파와 카낙족이 해외 광산기업의 진입을 반대하고 국내 기업이 VNC 지분을 매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하였고, 시위는 니켈 광산이 위치한 고로 지역에서 수도인 누메아까지 확대되었음.
- 이처럼 독립 찬반을 둘러싼 직접적인 소요 발생 가능성 외에도, 독립을 지지하는 계층과 반대하는 계층 간의 갈등이 경제·사회문제와 연계되어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시 잠재되어 있음.

국제관계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로서 국제관계도 프랑스 본국에 종속

-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로, 외교·국방·사법 권한이 프랑스 공화국 정부에 있어 국제관계도 프랑스 본국의 국제관계에 종속됨.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은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

- 뉴칼레도니아의 외채상환은 프랑스 정부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국제시장평가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이므로 OECD 등은 별도의 신용등급 부여 없음

-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로, OECD와 국제신용평가 3사는 뉴칼레도니아를 별도의 독립국으로 간주하지 않아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2021년 뉴칼레도니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봉쇄조치를 연중 두 차례 실시하고 관광객 입국 금지도 계속되면서 경제 회복이 다소 제한된 가운데 주요 부존자원인 니켈의 국제가격 상승,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1.8%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됨.
- 3차례의 독립 여부 국민투표 결과 3번 모두 독립 반대가 우세하여 공식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그러나 독립 찬성파가 2021년 말 실시된 마지막 국민투표를 보이콧하였으며, 현재 의회 다수당과 대통령이 모두 독립 찬성파라는 점에서 독립을 둘러싼 정치·사회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의 재정지원으로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보완하고 있으며, 프랑스 해외영토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외채 및 대외결제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음.